

 금융위원회	보도 해명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97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 (02-3145-7460)		한 창 훈 팀 장 (02-3145-7466)

제 목 :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[연합뉴스 12.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연합뉴스 12.19일자 「내년 車보험료 3.8% 안팎 인상 전망... “제도개선 효과반영”」 제하 기사에서
- “금융당국,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.2% 인하 효과 반영 주문”
- “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.8%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..”....
- “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,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,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.”...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,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